

# Degussa, Lecithin 장벽 허문다!

## 신 생산시스템 개발 Non-GMO 인증 획득 ... EU 규제기준 통과

최근 유전자조작식품(GMOs) 스캔들로 인해 대두 추출 Lecithin 수출이 감소하고 있어 Lecithin 생산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럽에서는 GMO 표기가 된 식품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대두 소비가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바이오테크 식품 수입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Lecithin 생산기업들은 고부가가치 그레이트 Lecithin 제품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 Lecithin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세계수요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생산기업들은 비유전자조작(Non-GMO) Lecithin을 선호하는 수요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조작 추적 및 유통경로관리(Identity Preserved)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

ADM(Archer Daniels Midland) Specialty Ingredients는 GMO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Farm to Fork Traceability>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미 IP(Industry Preserve) 프로그램을 구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ADM은 IP 그레이트 Lecithin 제한공급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Solae에 따르면, 유럽의 Lecithin 시장은 Non-GMO Lecithin이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GMO Lecithin의 수입량이 부족해 시장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Lecithin은 남미산이 대부분이다.

미국 Lecithin 시장에는 ADM, Solea 및 Degussa Texturant Systems이 참여하고 있다. 2003년 초 Degussa는 자사의 Decatur II1 플랜트의 Lecithin 생산 시스템이 Non-GMO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Degussa의 Lecithin 생산시스템은 Fluid, Deoiled 및 Fractionated Lecithin 등 전 그레이트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 Zaandam 및 독일 Hamberg 소재 Lecithin 플랜트도 Non-GMP 인증을 얻게 됐는데, Degussa는 유통시간 단축, 저코스트 및 고객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Non-GMO 인증 Lecithin 전 그레이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Degussa는 유럽진출을 원하는 미국의 식품 제조기업들에게 EU(European Union)의 Lecithin 함유 소비식품 수입규제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Decatur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Lecithin이 EU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100% 일치하기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4/05/25>